



삼국유사 인물학 여행(遊行)

‘토함산 석불사 석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종교와 예술과 과학의 만남

불교가 전래되자 이 땅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고조선 이래 환인과 환웅에 대한 천신신앙과 용녀에 대한 지모신앙 그리고 단군에 대한 산신신앙은 풍류도 세계관으로 집대성되며 질적 전환이 이뤄졌다. 종래의 무교는 불교와 갈등 혹은 대결하면서 풍류도를 아우른 불교 안으로 흡수돼 갔다. 불교는 산신과 칠성과 독성 등 호법 신중들을 깨안으며 무교와 풍류도까지 아우르며 전통사상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점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의 영역과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의 영역이 어우러져 불교의 지형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신라인들은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 문명과 문화적 성취를 흡수해 불교로서 민족문화의 지형으로 그려나갔다. 그 결과 김대성의 ‘종교 신념’과 아버지(阿非知)의 ‘예술 미감’ 및 신라인들의 ‘과학 정신’이 만나 토함산 석불사가 태어날 수 있었다. 석불사 조성의 계기는 아래와 같다.

모량리의 가난한 여인 경조(慶祖)에게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머리가 크고 이마가 편편해 성처럼 생겼기에 이름을 대성(大城)이라고 하였다. 집안이 궁색해 대성을 길러내기가 어려웠으므로 부자 복안(福安)의 집에 품팔이를 하게 했다. 대성은 그 집에서 밭 몇 고랑[畝, 1묘는 200평]을 나눠 받아 의식(衣食)의 밑천으로 삼았다.

이때에 덕망있는 승려[開士] 점개(漸開)가 흥륜사에서 육륜회(六輪會)를 베풀고자 복안의 집에 와서 권선(勸善)을 하자 배 50필을 시주했다. 점개가 주문(呪文)으로 축원(祝願)했다.

“신도께서 시주를 좋아하시니 천신이 언제나 보호하여 하나를 시주하면 만 갑질[萬箇]을 얻을 것이며 안락을 누리고 수명이 길어지게 하여지이다.”

이때 대성이 축원을 듣고 뛰어들어 어머니께 말하였다.

“제가 문간에서 스님이 외우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를 시주하면 만 갑질을 얻는다고 하더이다. 생각건대 우리가 전생에 일정한 적선(積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다. 이생에서 또 시주를 얹다가 오는 세상에서 더욱 가난할 것이니 내가 품팔이로 얻은 밭을 밭회에 시주해 후생의 과보를 도모함이 어떠리까?” 어머니가 말하였다. “좋다.”

이에 대성은 점개에게 밭을 시주했다. 얼마 되지 않아 대성이 죽었다. 이 날 밤 재상 김문량(金文亮)의 집에서는 하늘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일렀다.

“모량리의 ‘대성’이라는 아이가 이제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던 같은 날 같은 시에 재상 김문량의 아내가 아기를 수

태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왼손을 쥐고 퍼지 않다가 이레 만에야 퍼니 ‘대성’(大城)이라고 새긴 금 패쪽을 쥐고 있었다.

김문량은 이것으로 이름을 짓고 그의 예전 어머니를 집으로 맞이하여 봉양하였다. 대성은 장성하며 사냥을 즐겨했다. 하루는 토함산에 올라가 곰 한 마리를 잡았다. 산 밑 마을에서 묵었더니 꿈에 그 곰이 화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였느냐? 내가 환생하여 너를 잡아먹으리라.”

대성이 무서워 떨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 꿈은 “나를 위해 절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성이 그러했다고 맹세하고 깨어보니 땀이 흘려 이부자리가 젖어있었다. 이로부터 그는 사냥을 금하고 꿈을 잡았던 자리에 장수사(長壽寺)를 세웠다.

2. 본존불에 대한 몇몇 시각

대성은 이로 인해 느낀 바가 있었다. 대성은 비원(悲願)이 한결 더해 현생의 양친(現生父母)을 위해 불국사(佛國寺)를 세웠다. 또 전생의 부모(前世爺孃, 父母)를 위해 석불사(石佛寺)를 세워 신림(神琳)·표훈(表訓) 두 스님을 청해 각각 머물게 했다.

대성은 또 부모의 소상들을 선대해 세워 양육한 은혜를 갚았다. 한 몸으로써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를 한 것은 또한 드문 일이나 착한 시주의 영험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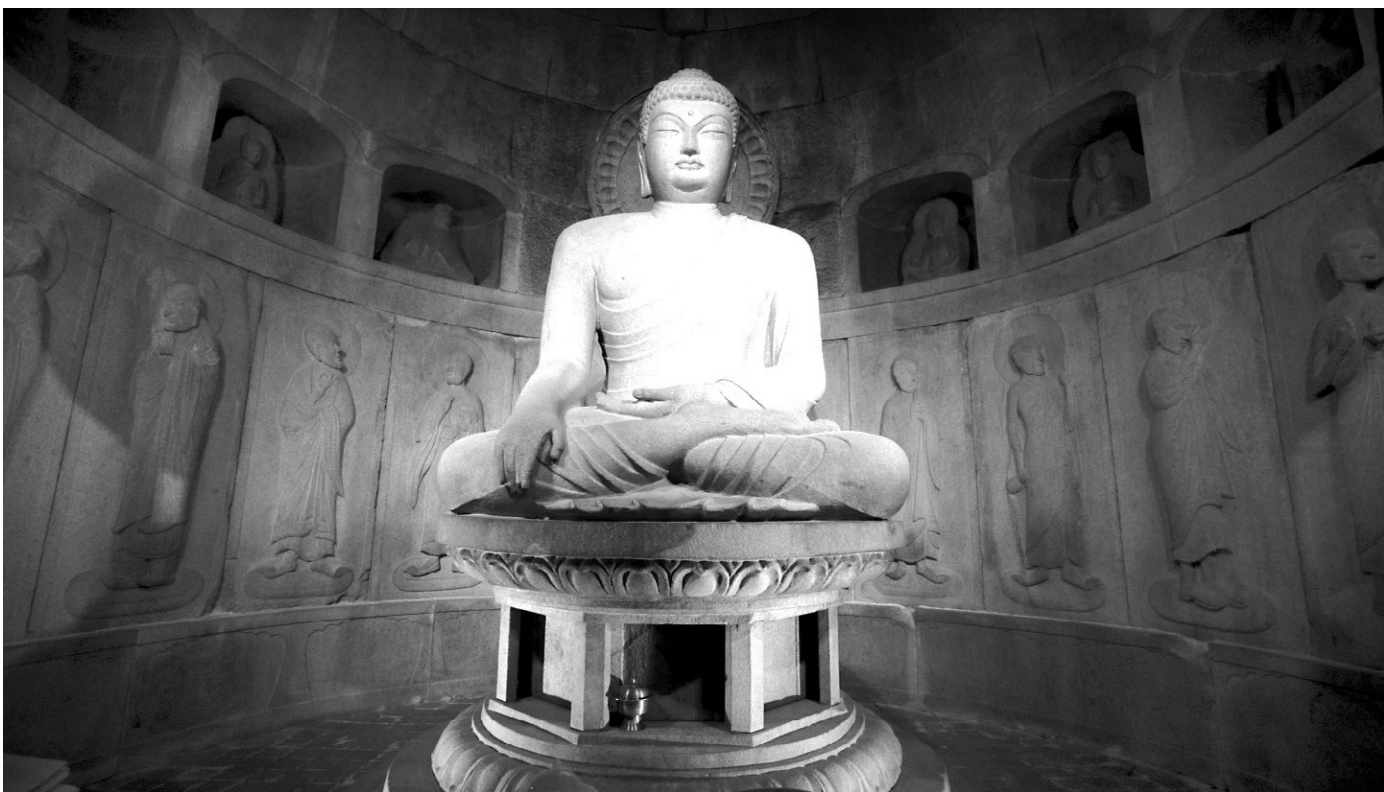
대성이 장차 석불을 조각하고자 큰 돌 한 개를 다듬어 석불을 안치할 담뽕등을 만드는데 갑자기 돌이 세 토막으로 갈라졌다. 대성이 통분하면서 잠도 들지 않고 있던 차에 천신이 밤중에 감람했다. 그 천신은 대성이 만들지 못한 석불을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대성은 막 자다 일어나자 남쪽 고개를 내달려가 향나무 불을 피워서 천신을 공양했다. 대성이 향을 피운 곳은 향고개[香嶺]라고 불린다.

흔히 분향 원호에 대한 연구를 ‘분향학’ 혹은 ‘원호학’이라 하고 <삼국유사>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삼국유사학’이라고 하듯이 석불사 본존불에 대한 학문연구를 ‘석굴암학’이라고 부른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루어온 석굴암학의 가장 주요한 쟁점은 1)주불의 명호, 2)목조전실의 유무, 3)비도 입구의 절개형과 전개형 여부, 4)주실 이마의 광창(光窓) 유무, 5)원실(주실) 입구의 아치형돌 유무로 집약된다.

현대 건축에서 금기로 여기고 있는 우물 위에 인공 석굴을 축조한 까닭은 석굴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재 석굴은 우물의 온도에 기초해 석굴 내부온도를 조절했던 조상들의 ‘과학’을

종교 신념과 과학 정신이 빚어낸 예술



신라인들은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 문명과 문화적 성취를 흡수해 불교로서 승화시켰다. 김대성의 ‘종교 신념’과 아버지(阿非知)의 ‘예술 미감’ 및 신라의 ‘과학 정신’이 만나 토함산 석불사가 태어날 수 있었다.

온전히 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원형 돛 위에 한 겹도 모자라 두 겹의 시멘트를 바르고 있으며, 석굴 뒷편에서는 발전기를 돌려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석굴암학의 쟁점들 중 가장 주요한 것은 본존불 즉 주불의 정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석굴을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본존상을 봉안하는 데에 있다.

석굴 안에 봉안되는 수많은 불상의 종류와 그들의 종교적 의의와 믿음의 내실은 모두 이 본존불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배치된다. 때문에 봉안되는 모든 존상들은 본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미타불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은 본존불의 명호를 석가모니불이라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로자나불 혹은 대일여래다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광전’이란 편역이 조선 후기의 중수 당시에 단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세부모를 위한 김대성의 발원이라는 기록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대승불교 이전의 붓다의 몸(佛身)에 대한 담론은 역사적 붓다인 석가모니불(變化身)과 비역사적 붓다인 비로자나불(自性身)의 이신설이었다.

고 이차돈이 착공한 신라 최초의 절인 ‘대왕흥륜사’에는 신라 십성(十聖)이 소상(泥塑)으로 모셔졌다. 동쪽 벽에서 서향(西方)으로 앉은 아도, 염축, 혜숙, 안함, 의상과 서쪽 벽에서 동향(東方)으로 앉은 자장, 해공, 원효, 사파, 표훈의 열 소상은 주불을 시위하고 앉아 있다. <삼국유사> 「흥륜사 편」 ‘흥륜사 금당십성’ 조목에는 주불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주」편을 통해 신라 중종 기(범음왕-진덕왕) 당시 재상이었던 김양도(金良圖)에 의해 조성된 흥륜사 ‘오당’(吳堂)의 주불이 미륵불이었음을 알 수 있듯이, 하고기(무열왕-경순왕)의 ‘금당’(金堂)의 주불은 ‘아미타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흥륜사 금당 십성은 경덕왕(742-765 재위) 때에 고적되었던 의상의 십대제자인 표훈이 자리하고 있음을 통해 경덕왕대나 그 이후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상은 677년 문무대왕의 명을 받들어 화엄의 근본도량인 영주 부석사를 지었다. 절의 법당인 무량수전에는 오직 아미타불 한 분만을 모신 채 아침 저녁으로 서방을 향해 예배했다. 여기서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의 양식과 석불사 본존불의 배치법과 불상의 양식이 같다는 것은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것은 그 시대의 방식과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의상의 제자인 표훈 역시 토함산 석불사에 머물면서 스승의 가풍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토함산 석굴이 완성된 것이 혜공왕(765-780) 대임을 감안한다면 8세기 통일신라의 신앙 추세인 극락정토를 염원하는 아미타신앙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삼국통일의 원동력된 아미타신앙 반영

옛 선조 지혜 살리는 복원 이뤄져야 할 때

존불과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는 본존불로 총결된다. 그러므로 본존불의 크기와 자리 및 양식은 석굴을 조성할 단계에서부터 이미 전제돼 있으며 그곳에는 최고의 신성성과 최미의 예술성이 갖춰져 있다. 때문에 토함산 본존불은 1)전세부모를 위한 김대성의 발원, 2)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 본존과 군위(軍威) 팔공산 삼존석굴(三尊石窟, 속칭 제2석굴암)의 본존좌상 등처럼 8세기 이전부터 유행했던 본존불의 우견편단(右見偏袒)의 법의와 오른손의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등의 양식, 3)1905년경에 석굴암에 걸려있던 편역인 수광전(壽光殿, 1882)과 석굴을 중수할 때 마련한 현판 ‘미타굴’(彌陀窟, 1891) 및 본존불 옆의 전각의 편역, 4)8세기 통일신라 당시의 신앙추세 등에서

대승불교가 흥기하자 ‘보살’이라는 이상적 인간형이 제시됐다. 석가모니불의 전생은 석가(호명, 선해)보살로 불렸고, 전세보살의 이타행에 의해 모느의 붓다가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불신설은 아라한행과 보살행을 통해 깨달음의 과보로서 붓다의 몸을 받은(수용승) 노사나불 또는 아미타불(보신불)처럼 깨달음의 법열을 자신을 위해 쓰는 자수용신과 타인을 위해 쓰는 타수용신의 사신설로까지 확장됐다. 이렇게 본다면 삼한일통을 마무리한 8세기 통일신라의 신앙추세가 내세와 극락을 갈구하는 아미타불이 주류였음을 현존 기록과 존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 한국민족문화의 금자탑 신라의 성황당인 천경림의 숲을 베어 내

석불사 본존불의 양식이 1세기 먼저 조성된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미타불과 근위 삼존석굴의 아미타불 역시 똑같은 수위의 좌상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본존불의 두광(頭光)은 직접 머리에 부착하지 않고, 머리에서 떨어져 후벽 십일면 관음입상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따로 둥근 연화판석 한 장을 끼워 놓았다. 두광을 불상과 따로 떼어 천장에 고정시킨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통일신라 사람들의 뛰어난 착상이다.

또 주실 이마 부분의 광창은 현장(玄奘, 602-664)법사의 <대당서역기>에 실린 인도 보드가야 대각사의 ‘큰 거울로 빛을 끌어들여 내부를 비추었다’(大明鏡, 引光內照)는 기록처럼 태양빛을 끌어들여 광창과 본존불 사이의 화강석 바닥돌에 비춰 간접조명을 사용했다. 그리하여 태양이 떠오르면 은은한 빛을 반사시켜 본존불의 상호를 비추게 함으로써 신비로움과 성스러움을 뽐내게 하였다.

이것은 인공 석굴의 아치형 구조를 장안해 내기 위해 치밀한 역학적 계산 위에서 주먹물들을 맞춰 올려 놓음으로써 안팎으로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견고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과학적 안목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또 30여 평 정도의 인공 석조 건축 안의 공기의 흐름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우물의 온도를 원용하였고, 각 층의 벽위에 감실 안에 30센티미터의 틈을 열어 천년 동안 숨을 쉬며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그리하여 이슬맺힌(結露)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동양에서 견출 수 없는(東洋無比)의 금자탑을 세울 수 있었다. 이처럼 석불사 석굴은 김대성의 종교 신념과 아버지의 예술 미감과 신라인들의 과학 정신이 빚어낸 절창이었다. 하지만 1,25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냉각 습기 제거를 위해 발전기를 돌리고 있으며, 광창을 폐쇄하여 전기를 쓰고, 목조 전실을 통해 예배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덮여 씌운 시멘트 거푸집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곳곳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재인 석굴암 원형 복원을 위해서 과거의 과학과 현대의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복원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됐다.

참고문헌

- 리성호, 『삼국유사』(까치, 1999).
- 황수영, 『석굴암』(열화당, 1989; 1996).
- 신영훈, 『석불사·불국사』(조선일보사, 1998).
- 상성문화재단, 『한국의 세계문화유산』(학고재, 1997; 1998).



고영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흉터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오추배게등 자매품다양)